

[논어한글쓰기_15] 빈이묵침

子	貢	曰	,	貧	而	無	諂	,	富	而	無	驕	,
何	如	?	子	曰	,	可	也	.	未	若	貧	而	樂
,	富	而	好	禮	者	也	.	子	貢	曰	,	詩	云
,	如	切	如	磋	,	如	琢	如	磨	,	其	斯	之
謂	與	?	子	曰	,	賜	也	,	始	可	與	言	詩
已	矣	.	告	諸	往	而	知	來	者	.			

가	난	해	도	아	침	하	지	않	고	,	부	유	해
도	고	만	하	지	않	으	면	어	뎡	습	니	까	?
"	공	자	가	말	하	길	,	"	관	참	다	.	
그	러	나	가	난	하	면	서	도	즐	기	고	,	부

유하면서 도예를 좋아 하는 것만
못하다. "자공이 말하길, "시
경에 '마치 자르고 갈고, 쪼고
다듬는 것 같다'고 한 것이 이
것을 말하 는 것입니까? " 공자가
말하길, "사(賜)야, 이제야
비로소 너와 시를 말할 수 있겠
구나. 지나간 일을 말해주면 앞
으로의 일을 알 수 있구나. "